

# 현대백·카카오·태영 등 7곳 신규편입... 동국제강은 제외

## 금감원, 주채무계열 38개사 선정

주채권은행 재무구조 관리 대상 평가결과 미흡한 신용위험 관리 전체 신용공여액 322.6조, 16% ↑ 현대차, SK, 롯데, 삼성, LG 상위

빛이 많아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를 평가받아야 할 기업집단 38곳이 선정됐다. 이랜드, 카카오, 태영 등 7개 계열이 올해 새로 편입됐으며 동국제강 계열은 제외됐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지난해 총차입금이 2조717억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 잔액이 1조2094억원 이상인 38개 계열기업군을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매년 총차입금과 은행권 신용공여가 일정금액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고 있다. 전년 말 총차입금이 전년보다 명목 국내총생산의 0.1% 이상이면, 전년말 은행권

## <주채무계열별 주채권은행 현황>

주채권은행	담당 계열(총차입금 기준 순위)	전년 대비 증감
우리(11개)	삼성(4), 엘지(5), 한화(6), 포스코(8), 씨제이(12), DL(14), 중흥건설(17), 두산(18), 코오롱(25), 효성(26), 엘엑스(36)	+1개 (엘엑스)
산업(10개)	한진(11), 금호아시아나(15), 하림(20), SM(22), 이랜드(23), 태영(27), HL(31), 한온시스템(33), 대우조선해양(34), 동원(37)	+2개(신규:이랜드,태영, 한온시스템, 제외: 동국제강)
하나(8개)	현대자동차(1), 에스케이(2), 지에스(7), HD현대(9), 현대백화점(30), 넷마블(32), DN(35), 세아(38)	+2개 (현대백화점, DN)
신한(6개)	롯데(3), 엘에스(16), 에스-오일(21), 카카오(24), 오씨아이(28), 케이씨씨(29)	+1개 (카카오)
국민(2개)	신세계(10), 케이티(13)	-
SC(17개)	에이치디씨(19)	-

신용공여잔액이 전년말 전체 은행권 기업 신용공여잔액 대비 0.075%가 넘는 기업그룹이 대상이다.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면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하면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 등 신용위험 관리 대상이 된다. 다만, 주채무계열 선정은 절대적인 신용공여액이 많다는 의미로 당장 재무 구조가 부실하다는 뜻은 아

니다. 전체 주채무계열의 수는 지난해와 같았으나 이랜드, 카카오, 태영, 현대백화점, DN, 엘엑스 계열 등 7개사가 신규 편입됐고, 동국제강 계열은 제외됐다. 엘엑스는 LG계열에서 친족 분리돼 독립된 기업집단으로 형성된 엘엑스는 인수합병(M&A) 등 투자확대를 위한 차입 증가 등으로 주채무계열에 새롭게 편입됐다. 동국제강 계열의 경우 영업

흑자 등에 따른 차입금 상환으로 총차입금 선정기준에 미달돼 제외됐다. 상위 5대 주채무계열(총차입금 기준)은 현대자동차, SK, 롯데, 삼성, LG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삼성과 롯데의 순위가 변동됐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의 기업신용공여잔액은 177조5500억원으로 2021년말(161조2500억원) 대비 163조 원 증가했다.

전체 주채무계열의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322조6000억원으로 전년 주채무계열(32개, 277조1000억원) 대비 45조5000억원(16.4%) 늘었으며, 총차입금은 609조7000억원으로 전년 주채무계열(32개, 546조3000억원) 대비 63조4000억원(11.6%) 증가했다.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38개 기업그룹에 대해서는 우리·KDB산업·하나·신한·KB국민·SC은행 등 6개 주채권은행이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성평가시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최근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한 실적 악화 추세, 부동산PF 관련 우발채무 위험 등 잠재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는 등 엄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평가결과가 부채비율 구별별 기준점수 미만인 기업 그룹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기준점수의 110% 미만인 곳은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ngia\_tea@metroseoul.co.kr

## 미래에셋생명, 해외 소외계층에 천연비누 전달

### Advertorial Corner

핸즈온 방식 참여형 비대면 기부활동 임직원 100명 참여, 비누 300개 제작

미래에셋생명 임직원들이 해외 소외계층 가정의 건강과 위생을 지원한다.

미래에셋생명은 필리핀 소외계층 가정에 직접 만든 천연비누 300개를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봉사에는 임직원 총 100명이 참여했다. 천연비누를 직접 만들고 포장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개인위생 관리가 더 중요해진 시점에서 천연비누는 해외 소외계층 가정의 건강을 책임질



생활필수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봉사는 기부 물품을 직접 제작하는 '핸즈온(Hands-ON)' 방식으로 진행했다. 핸드온이란 '두 손에 정성을 담는다'는 의미다. 공간 제약 없이 누구나 사회공헌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고안된 참여형 비대면 기부활동이다.

나눔문화를 지속 확산하기 위해 '핸

즈온'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 중이다. 방역 마스크, 북 커버, 소아암 어린이 돕기 항균키트 등 필수품을 만들어 전달하는 참여형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바 있다.

황병욱 미래에셋생명 홍보실장은 "해외의 소외받는 아동 청소년들이 사회의 온기를 느끼고, 올바른 손 씻기 등 건강한 생활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번 봉사활동을 기획했다"며 "미래에셋생명은 사랑을 실천하는 생명보험업의 본질에 따라 고객과 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꾸준히 환원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 신협, 농어촌 특산품 판매·홍보 지원

상생상회서 '어부바장터' 오픈 18일부터 이틀간, 32종류 선택

신협중앙회가 농어촌 신협의 지역 특산품 판매에 나섰다.

신협중앙회는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상생상회'에서 '신협어부바장터'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전국 농어촌 신협 및 조합원의 특산품 홍보를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대관령신협 황태 ▲청송신협 사과 ▲한산신협 소곡주 ▲완도제일신협 미역 ▲금산비단·금산중앙신협 인삼제품 ▲봉평신협 메밀제품 등 총 32종류의 농수산 특산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3만원 이상 구매할 소비자에게는 고무장갑 및 한지 물티슈를 증정한다. 5만원 이상 구매하면 추가로 어부바 장바구니 카드를 증정한다. 이어 개점 당일 구매 영수증을 지참하면 어부바 캐릭터 인형 뽑기에 참여할 수 있다.

'어부바 랜선장터'를 진행한다. 방송인 이희경씨가 일일 쇼호스트가 되어



신협의 특산품을 소개한다. 시청자 중 500명을 추첨해 대관령신협 황태채, 완도제일신협 자른 미역, 어부바 인형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김윤식 신협중앙회 회장은 "신협이 자랑하는 다양한 지역 특산품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신협어부바장터'와 같은 다양한 사업모형을 발굴하여 농어촌 신협과 조합원들의 우수한 농·수·특산품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 롯데, 광역버스 예약서비스... KB국민, 혁신 스타트업 발굴

### 카드 News

롯데카드가 광역버스 이용이 잦은 소비자들의 편의성 제고에 나섰다.

◆ 원하는 노선, 정류장, 좌석 등 선택 롯데카드는 디지털카업 모빌리티(Mobility) 서비스에 광역버스 예약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출퇴근 시간 광역버스를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다. 교통카드 등록 후 ▲광역버스 노선 ▲탑승 정류장 ▲출발 일시와 좌석 등을 선택해 예치금을 결제하면 된다. 탑승 카드 등록과 예치금 충전은 롯데카드는 물론 타사 신용·체크카드로도 가능하다.

매일 탑승하는 노선은 '마이(MY) 버스'로 등록해 '빠른예약'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빠른예약은 매년 노선, 탑승지, 탑승시간, 좌석 등을 검색할 필요 없이 예치금과 탑승카드가 등록되어 있다면 클릭 한 번으로 예약이 완료되는 기능이다. 예약은 탑승일 일주일 전부터 가능하다.



NH농협카드가 데이터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낸다.

◆ 세종시·한국은행·BGF리테일 등 협업

NH농협카드는 BGF리테일, 세종시, 한국은행 등 기관과 협력을 통해 데이터 사업 역량을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BGF리테일과의 협업을 통해, CU편의점 방문 고객의 매출데이터와 NH농협카드 소비자의 데이터를 결합한다. 각 편의점 점포별로 운영 전략을 수립하고,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세종시 등 지방자

치단체와의 데이터 협업을 단행했다. 한국은행에는 지역경제 분석을 위한 소비 데이터를 지속 제공하고 있으며, 가맹점 홈페이지를 통해 빅데이터 기반 매출·상권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KB국민카드가 스타트업 기업 발굴에 나섰다.

◆ 동반성장예 초점 스타트업 발굴

KB국민카드는 지급결제, 금융서비스,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퓨처나인(FUTURE9)' 7기 프로그램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급결제(Payment) ▲금융서비스 ▲챗GPT·AI ▲플랫폼·콘텐츠 ▲컨슈머테크 ▲프로세스 혁신 ▲모빌리티·ESG ▲헬스케어 ▲글로벌 등 총 9개 영역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 서비스 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다.

/김정산 기자

## 우리銀, 최고 연 5.5% 금리 정기적금 출시

가입기간 1년, 월 50%만원까지

우리은행은 최고 연 5.5%의 금리를 제공하는 '우리 퍼스트 정기적금'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입기간은 1년이며 최고 월 50만원까지 우리WON뱅킹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기본금리는 2.5%로 직전 1년 동안 입출식 상품을 제외하고 우리은행 적금이나 예금상품을 보유하지 않았던 고객에게 3.0%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5.5% 금리를 제공한다.

'우리 퍼스트 정기적금' 출시로 우리은행은 지난해 4월 출시해 첫 거래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우리 첫거래우대 정기예금'과 함께 우리은행 예적금 상품이 없는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예·적금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복잡한 조건으로 실제 우대금리 충족이 어려운 고금리 상품에 대한 고객 의견을 반영해 예적금 미보유 고객에게 쉽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